

“문화재 월동준비 서두를때”

화재가 나기 쉬운 겨울, 특히 목조로 되어 있는 사찰과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사찰들은 화재 예방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주시청 등 담당 시·군청이 최근 들어 목조문화재에 대한 겨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소화기의 미비 △노후 전기배선으로 인한 누전 △불량 누전차단기 교체 등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사찰의 경우 연등을 다는 전선 등을 규격선이 아닌 비닐 선을 쓰는 곳이 종종 있어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의 보고 경주시는 소방서,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3백 94점 가운데 불국사 등 중요한 목조건물 2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표양동 세 곳의 문화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불국

사 경우 소화기의 부족과 물탱크의 미비함이 지적돼 보완이 요구됐다. 경주시청 문화재과에서 행하는 안전점검은 연초에 총체적으로 조사한 후 동산문화재 도문화재 기념물 등으로 나누어 종류별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총 6백37점의 문화재 가운데 목조문화재 52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기도청 문화재계 김소천씨는 “사시사철 연등을 달고 있는 사찰의 경우 연등을 달기 위해 전선을 끌어다 쓰는 경우가 많은데 불량 전선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어 규

격선이 아닌 비닐선의 교체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청은 내소사 등 국가지정문화재 45곳과 동고사 등 도지정문화재 1백56곳 등 총 2백1곳의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 및 전기안전검사 결과 비닐코드선과 누전차단기 교체가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떠올랐다. 마곡사 대웅보전, 수덕사 대웅보전 등을 조사한 공주시청, 목조문화재 11곳을 점검한 광주시청, 문화재 31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서산시청 등도 소화기 비치 상태 등 화재예방 점검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보유자들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재에 대한 겨울철 안전점검은 화재 예방 차원에서 관청과 문화재관리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정작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보수는 문화재 보유 및 관리자들에게 떠넘겨지는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경주시청 문화재과 조창현화에서는 “안전점검에서 문제점이 지적됐을 때 불국사처럼 재정이 탄탄하고 기술자들도 있어 보수의 능력이 있는 곳은 관청지만 재정이 미약한 곳은 언제 보수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도 안전점검 후 보수 처리는 국가 재정으로 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불심시심 <154>

몸이 반공에 솟은 듯

御風千仞上 (어풍천인상) 천 길 위에서 바람을 타니
身在半天中 (신재반천중) 몸은 반공에 솟은 듯
鳥鳴變瀑布 (조서변기포) 섬들은 바둑판으로 깔렸고
村家蓮葉滿 (촌가련예동) 촌집은 연꽃 길로 통했네
秋寒雨雨微 (추하유우미) 밤비를 맞아 연해진 새삭
帆借夕陽紅 (범적석양홍) 돛은 석양빛 빌려 붉었다
未了相關句 (미료상구) 아직 주고 받을 시 못 마쳤는데
忽鳴上界鐘 (홀명상계종) 갑자기 산 위의 종이 울리네.

해금대의 시이다. 범영봉에 올라(登泛瀾峰) 지은 시이다. 건물을 무시해 보는 그림을 조감도라 한다. 마치 새가 공중에 떠서 내려다 보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 시는 자연의 조감도이다. 바람을 조절하여 천길 산정을 올랐다. 내 육신은 이미 새가 된 것이다. 비록 산마루의 한 점의 정상이지만, 허공에 솟은 기본이다. 내려다 보이는 저 끝없는 바다, 여기 저기 떠있는 섬들은 한 점 두 점 아무렇게나 놓인 바둑알이다. 바둑알의 바둑내 기인가. 다시 마을로 시선을 돌리면, 수로를 따라 이어지는 집들이 마치 연못에 떠있는 연꽃과 같다. 초가집이 연꽃으로 통했다 했다. 이미 온 마을이 불국정토로 변한 느낌이다. 파릇파릇 자라는 새싹은 간밤의 비를 받아 더욱 부드러워 자라고 있다. 이 경지를 '비를 받아 연하다(承雨嫩)' 하였다.

한자로서의 시구는 그리 쉬운 수법이 아니다. 시인의 글자 고를 높은 솜씨라 해야겠다. 저녁 햇빛에 반사되어 붉어진 돛을, 저 석양빛을 빌려서 붉다 하였다. 빛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돛 자신이 능동적으로 빌려왔다. 시인의, 작사의 자신감이다. 산재된 자연을 그저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소재들을 찾아나서서 내게로 유인하는 적극적인 자세이다. 시인은 이러한 경관 속에서 시상이 떠오르고 떠오른 시상은 한 편의 구성물로 짜내어 한다. 그것도 수작이라는 주고 받음의 대상이 있을 때에는 더욱 흥겹다. 그러나 시의 수작이 다 끝나지 않은데 내게로 알려진 산사의 종소리가 들린다. 모든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순간이다. 대사에겐 수작이 끝날 날은 없다. 그 수작이 다름 아닌 자연 그 자체이기에. 이종찬 (동국대 명예교수)



◇96년 발경돼 2년여의 보존처리 끝에 공개된 금동사리합의 지국천왕. 선한 이에게 상을 내리고 악한 자에게 벌을 주어 국토를 수호하는 의호신.

김은사지 사리합 동편부재 2년여 보존처리 끝에 '공개'

96년 김은사지 동탑 3층탑신 윗면 사리공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사리합의 동편부재에 새겨진 금강저를 쥐고 악귀를 밟고 있는 지국천왕(持國天王)이 2년여의 보존처리 끝에 공개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에서 보존처리한 사리합에 새겨진 사천왕은 전체적으로 허리는 가늘고 몸을 비튼 등 생동감과 유연성을 크게 강조하였으며 도금 위에 눈썹과 수염이 그려져 있다. 96년 발굴 유물 가운데 금동사리합의 동편부재 외에 금동사리기 내부장식 부재(승상, 사천왕상, 사자상, 용상, 천개장식), 금동불상, 청동방울 등의 보존처리가 완료되어 선보였다. 금동사리합은 금도금, 주물, 돌을새김, 부조기법, 날갈기법 등 금속공예 기법이 총 망라된 7세기말 통일신라 공예기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 불교 조각사, 공예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된다. 나머지 유물은 앞으로 2~3년간의 보존처리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김지연 기자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받은 최진숙씨 "불교음악 발전에 도움됐으면"

올해 '반영규씨 고회기념음악회' '불광사찬불가 발표회' 등 불교계의 여러 음악회에 동참한 불자 국악인 최진숙씨(28)가 10일 문화관광부가 시상하는 '98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은 올해 활약이 두드러진 문화예술계 각분야의 젊은이들중 업적이나 실사를 거쳐 8명의 유망한 젊은 예술가를 선정 시상하는 것. '전통예술' 분야가 올해 따로 생겨 최씨로서는 더욱 큰 영광이 됐다.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관소리를 해온 최진숙씨는 올해 2월 6시간짜리 완관 장

막창극 흥환전'을 성공리에 마쳤고 KBS가 주최한 서울국악대경연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등 내일의 국악계를 짊어지고 갈 셋별. "앞으로 국립창극단에 입단해 경력을 쌓고 연기력도 키워 만능 국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또 기회가 닿는대로 불교음악회에도 많이 참가하고 찬불가 CD도 내고 싶습니다." 29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자선 리사이틀을 갖는 최진숙씨는 틈만 나면 절을 찾아 마음을 추스린다고.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문화 단신

서예대전 입상작 전시

제2회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이 2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상을 받은 조주연씨의 한글서예 '통일기원'을 비롯 한글 한문 문인화 전각 등 각 부문별 입상작 총 380여점이 전시된다.

진주사암 불교음악제

진주불교회관이 주최하고 진주시시암연합회가 후원하는 제5회 불교음악제가 16일 오후 6시 경 상남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제에는 도신·정률 스님, 승무에 임이조씨, 호국사 연화사 월경사 합창단 등이 참여한다. (0591)747-0108

찬불동요 창작집 7집

좋은 벗 풍경소리는 어린이 찬불동요 창작집 제7집을 펴냈다. '논속의 매화(정관스님 사최미선 곡)' '아가송아지(운문스님 사 유익상 곡)' '소꿉장난(대업스님 사 이종만 곡)' 등 16곡이 들어있다. (02)242-2567

공예대전 발전 세미나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전승공예대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22일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년 연속 전승공예대전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전승공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윤용이교수(원광대)의 사회로 이종철(국립민속박물관장), 송방웅(나전장 기능보유자), 신탁근(은양민속박물관장), 남상민(한국지수협회장), 광대용교수(홍익대)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한다.

전통등만들기 교실

한민족문화원, 15일부터

복등, 물고기등, 용등, 수박등... 불교 상징물이나 친근한 동 식물의 모양을 본떠 만드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전통등은 그 자체가 독특한 불교문화의 한 분야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초파일부터 일반에 선보인 전통등은 올 초파일에는 제등행렬 참가는 물론 40여종의 전통등이 강남 봉은사에서 전시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전통등 만드는 방법을 배워 내년 초파일에는 우리 사찰에 장식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전통등 만들기 교실이 15일부터 3개월 과정(매주 화 목 오후 2시 7시)으로 종료구 인 사동 전통등 전승공방에 개설된다. 한민족문화원(원장 홍무홍·구 한국불교문화원)이 주최하는 전통등만들기 교실은 전통등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여는 전통문화체험의 자리로 등역사의 현대적 의미, 대나무 다루기, 수박등 만들기, 창작등 만들기 등 멋스러운 전통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감습비 9만원. (02)723-0306

건칠지불 통도사에 기증



◇상기호씨가 통도사 방장 월하스님에게 건칠지불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제23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자 상기호씨가 수상작 건칠지불을, 11월30일 통도사 박물관에 기증했다. 제작자 상기호씨는 "건칠지불이 갖은 잠을 속에서도 당당히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뜻"이라며 기증의사를 밝혔다. 건칠지불은 한지 모시 삼베를 혼합해 뼈대를 만들고 생꽃실을 건조시키면서 여러차례 반복해 만드는 것으로 고려시대에 성행하다 지취를 갖춘 기법이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30기 佛敎儀式범음·범패) 학인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야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다루는 법, 도량식, 쇄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식식 등
-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 작법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정규과정(1년제) 추가모집
- 의식전문법사과정(2년제)
-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 교육기간 : 3개월(각과정)
- ◆ 원서접수 : 1998년 12월 14일(토)~99년 1월 11일
- ◆ 개강일시 : 1999년 1월 12일 오후 5시 정각
- * 본원은 초중과 교육과정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뒤 히리우드극장 옆 경동빌딩 3층
 ☎ (02) 741-0495, 0496
 해동불교 범음대학
 海東佛敎儀式教育院

길상사 겨울 선(禪)수련회

새로운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는 시기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기 간 : 1998년 12월 25일(금) ~ 28일(월)
- 일 정 : 3박 4일
- 장 소 : 성북동 길상사 선법전
- 대 상 : 일반인 및 청소년
- 인 원 : 80명 내외
- 수련비 : 5만원
- 내 용 : 선(禪) 초심자를 위한 실상실수(實參實修), 발우 공양, 108배 참회기도, 불자 기본 예법등
- 접수마감 : 수련 전 3일까지
- 제 1차 수련회: 1998년 12월 25일(금) - 28일(월): 일반인
- 제 2차 수련회: 1998년 1월 1일(금) - 24일(월): 일반인
- 제 3차 수련회: 1999년 1월 10일(일) - 13일(수): 중고생
- 맑고 향기롭게 수련회 ---
- 제 4차 수련회: 1999년 1월 17일(일) - 20일(수): 일반인
- ◆ 이후의 수련회는 평상시와 같은 토요일 14시 30분부터 일요일 20시까지 1박 2일 일정의 주말 선 수련회이며 연중무휴입니다.
- ◆ 수련비 : 2만원
- 제 1차 수련회: 1999년 1월 23일(토) - 24일(월): 일반인
- 제 2차 수련회: 1999년 1월 30일(토) - 31일(일): 일반인
- ◆ 자원봉사자 동참 :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 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수련회 준비, 공양일, 사무실 보조, 뒷정리)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TEL (02)3672-5945, 6 FAX (02)3672-5947

1999년 청암사 승가대학 입학시험 공고

청암사 승가대학에서는 1999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 : 사미니과 00명
- 시험과목 : 면접, 초발심자경문, 불교의식, 사미니율의
- 구비서류 : 입학원서(본 강원 소정양식), 승려증 사본 은사스님 추천서 건강진단서, 주민등록증 양면복사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본인(범명) 도장 및 사진(3×4cm) 4매
- 준비일 : 가사(오조), 장삼, 필기도구
- 도학일 : 1999년 1월 26일 화요일(음력 12월 9일) 오후 5시
- 시험일시 : 1999년 1월 27일 수요일(음력 12월 10일) 오전 9시
- 연락처 :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번지 청암사 승가대학 ☎ (0547)437-0038
- 교통편 : 김천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오전 (7시 35분, 8시 40분, 10시 10분, 11시 50분), 오후 (2시 20분, 3시 20분)

* 자세한 문의는 전화요망

불기 2542년 12월 23일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